

# “이제 다시, 모두의 노동절” 노·사·민·정이 함께 준비합니다

- ‘26.5.1.(금) 노동절 기념식 및 부대행사 추진상황 등 공유
- 노·사·민·정 공동으로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협력 의지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17일,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장단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태일재단 등 노·사·민·정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기념식과 부대행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공동의 준비 노력과 향후의 협력 의지를 함께 확인했다.

그간 노·사·민·정은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정례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4월 한 달간 MBC에서 송출되고 있는 노동계, 경영계와 국회가 참여하는 노동절 기념 라디오 캠페인 역시 공동 준비의 일환으로 실무 회의에서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보활동이다.

올해 노동절은 63년 만에 명칭이 복원되고 최초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노동절을 향유할 수 없었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포괄하는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이에, 공동준비위원회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있다.

우선 5월 1일 노동절 당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야외 기념식과 부대행사인 「5.1. 걷기 페스티벌」을 연계하여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노·사·민·정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장애인,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주체들이 함께 자리한다. 올해의 노동절 유공자 대표에 포상을 수여하고 다양한 노동 주체들이 미래 노동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기념식 이후 진행되는 걷기 페스티벌은 청계광장, 전태일기념관을 거쳐 평화시장에 이르는 5.1km 코스로 구성되며, 걷기 코스를 따라 고용·노동 정책 홍보 및 상담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일상 속 노동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열린 행사로 추진된다.

또 다른 부대행사로 4월 30일에 청년층 대상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도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다양한 노동형태의 패널들이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각자가 생각하는 일의 의미, 일하면서 느끼는 불안,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도전과 대안 등을 나눌 수 있는 공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준비위원회는 기념행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노동절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노동 존중, 대화와 상생·협력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금번 기념행사가 온 국민 참여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념식 및 부대행사를 함께 홍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을 사전에 모집하기로 하였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금번 기념행사의 경우 정부 자체만의 행사가 아닌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여 함께 준비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라며, “서로 간의 신뢰자산이 현장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번 5월 1일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노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노동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두의 노동절’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노동절 기념행사 준비 공동위원장단 조찬 회동 개요

2.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은경 (044-202-7587)
		담당자	사무관	정혜진 (044-202-7589)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위원장단  
조찬 회동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가오는 노동절 기념행사를  
노·사·정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떻게 함께 추진해 왔는지  
그 현황을 공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쌓아온  
끈끈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노동절은 일하는 사람의 땀과 헌신을 기리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함께 되새기는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최초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국가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의 노동절은 어느 한 주체만의 날이 아니라,  
노동계와 경영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노동절'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념행사의 경우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뜻깊었습니다.  
노사민정이 여러 차례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노동절의 의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소통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동참해 주신 기관들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간 서로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목표와 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든든한 기반이 될  
대화과 상생의 노동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힘을 모아,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노동에 자부심을 느끼고,  
온 국민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두의 노동절' 로 기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는 노·사, 그리고 시민사회와  
남은 준비 기간 동안에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올해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많은 분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